

투데이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적신호

기업 후원금 유치 저조... 목표액 14% 뿐
내년 예산도 전무... "일회성 행사 그칠라"

오는 10월 열리는 '2012 국제농업 박람회' 행사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성공 개최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전남도가 기업 후원금 유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 박람회 관련 정부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녹색 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라는 주제로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대에서 열린다. 전남도가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하며 국비 70억원과 도비 177억 원이 투입된다.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찾는 국내 유일의 첫 국제 규모 행사로 국내(279곳)·국외(25개국 101곳) 기업·기관이 참여, 105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농업관·농업미래관 등 8개 전시관과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서며 현재 공작률은 96%에 이르고 있다. 23일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농업박람회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현재 기업 후

원금 2억5000만원 뿐이다. 이번 행사의 수익사업(임장권 판매·시설임대 등) 목표액은 56억원이며, 이중 후원금은 18억원이다. 현재까지 후원금 목표액의 13.9%만 거둬들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각 기업에 후원 협찬을 위한 협조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 국비 지원을 해줬으면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전남도도 문제다. 적극적으로 후원사를 찾아다니기 보단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번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남도와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3년 주기로 행사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선 정부의 지

원과 관심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전남도가 요청한 내년도 기본운영비(인건비·시설관리비) 예산 7억원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후활용방안도 문제다. 전남도는 박람회장이 전남농업기술원 일대에 들어서는 만큼 행사 후 사무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람회장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높다. 배기운 의원은 "이번 행사는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국제 행사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각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등 국제농업박람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



투자유치를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강운태 광주시장이 22일(현지시간)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과 1000만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영산그룹 1000만달러 투자협약

강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 투자유치단은 22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Vienna)에 소재한 영산그룹을 방문,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기아자동차가 광주공장에 연간 62만대 증산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영산그룹이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해 광주에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영산그룹은 광주 출신인 박종범 회장이 이끄는 글로벌기업으로, 빈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등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시드니와 미국 L.A. 중국 상하이 등에 지사를 발표한 것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영산그룹이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해 광주에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시장은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고향인 광주에 투자를 결정한 영산그룹에 감사한다"며 "소중한 투자자 결실을 맺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전남 지자체 20곳 재정자립도 20%도 안돼

Table with 3 columns: 지자체, 2011년, 2012년. Lists various municipalities and their fiscal self-reliance percentages for 2011 and 2012.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29곳 중 20곳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도 7곳이나 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244곳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를 포함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29곳 중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곳은 나주(17.9%), 북구(15.8%), 남구·담양(16.3%), 동구(15.8%), 장성(15.3%), 전남도(14.6%), 진도(11.4%), 영광(11.3%), 보성(10.8%), 구례·무안(10.2%), 강진(10.0%) 등 20곳에 달했다. 특히 안도(9.9%), 곡성(9.7%), 장

1면 '대형마트 업체변경'서 계속 당초 대형마트 등록에 있던 롯데마트·롯데아울렛 월드점들은 지난 4월 롯데마트 월드점들은 '대형마트'로, 롯데아울렛 월드점들은 '쇼핑센터'로 분리해 등록을 변경했다. 지난해 인수한 빅마트 본점의 경우 대형마트로 등록됐던 것을 '쇼핑센터'로 변경 등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하 1층 롯데슈퍼만 의무휴업을 적용받고 있고 있으며, 지상 1, 2층은 정상영업 중이다.

흥(9.6%), 신안(9.3%), 해남(9.0%), 고흥(8.1%), 함평(8.0%) 등 7곳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기에도 벅찬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41.1%를 기록한 광주시분청과 39.5%인 광양시, 30.3%인 여수시를 제외하면 목포(26.6%), 서구(24.5%), 화산(23.6%), 광산(23.2%), 영암(22.8%), 순천(20.7%) 등이 모두 3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시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으며, 전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최하위였다. /홍행기자 redplane@

"친환경 고품질 천일염을 찾아라"

전남도 염전 콘테스트 전남도는 친환경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2회 염전 콘테스트'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열린 광주시분청과 39.5%인 광양시, 30.3%인 여수시를 제외하면 목포(26.6%), 서구(24.5%), 화산(23.6%), 광산(23.2%), 영암(22.8%), 순천(20.7%) 등이 모두 3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시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으며, 전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최하위였다. /홍행기자 redplane@

"한국 해외도피 자산 888조 세계 3위"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세금을 피해 해외의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옮겨간 자산이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의 조세 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taxjustice.net)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총 7790억달러(약 88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1조1890억달러, 약 1356조원), 러시아(7980억달러, 약 910조원)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5200억달러), 쿠웨이트(4960억달러) 등이 순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최대 32조 달러가 프라이빗뱅크(PB)의 도움으로 여러 국가로부터 스위스 은행이나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치매노인이 가늘게 됐을 때 온 가족이 총동원돼 찾아 나서는데 대신 휴대전화를 통해 치매노인이 있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번 이상 가늘 경험에 있는 치매노인에게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한 목걸이나 벨트를 착용토록 해 실종 시 위치

GPS 목걸이·벨트로 치매노인 실종 막는다

보건복지부, 가을 이력 치매노인 착용 추진 앞으로는 치매노인이 가늘게 됐을 때 온 가족이 총동원돼 찾아 나서는데 대신 휴대전화를 통해 치매노인이 있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번 이상 가늘 경험에 있는 치매노인에게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한 목걸이나 벨트를 착용토록 해 실종 시 위치

Advertisement for public employee recruitment. Title: 공무원 대출 (Public Employee Loan). Features: 5.5% interest rate, 1000-8000 million won loan amount. Includes a table of loan amounts and interest rates for various groups.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cy. Title: 무등빌딩임대 (Mudeung Building Rental). Features: 330sqm per floor, suitable for offices and sales. Contact: 062-222-0527.

Advertisement for solar power. Title: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2012 Solar Power Residential Subsidy Implementation!!). Features: Government subsidy, 25 million won reduction in installation costs. Includes a table of subsidy amounts.